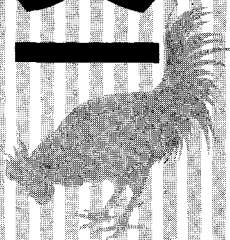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연분홍 계란을 대량생산하는 새로운 닭품종 개발

일본 아이치현 농업종합시험장에서는 중국원산인 육용닭 나고야 코친을 개량하여 연분홍색의 계란을 많이 낳는 새로운 닭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험장은 내년 봄부터 새로운 품종의 닭 10,000마리를 양계농가에 판매하여 내년 가을부터는 아름다운 연분홍색의 계란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장에서는 최고의 닭고기로 불리는 나고야 코친을 1992년부터 7년에 걸쳐 개량을 추진하여 왔으며, 새로운 품종은 계란 껍질의 색깔이 선명하고 산란기간(320일)을 통해 특유의 연분홍색을 유지하며, 종래의 닭에 비해 10% 이상 많은 216개의 계란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품종은 체중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채란기간 동안 먹는 모이도 수당 162엔 정도로 종래의 닭에 비해 1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고 밝혔다.(日本農業新聞)

제40회 초생추감별 경진대회 개최

제 40회 초생추 감별대회가 지난 10월 31일 일본 동경대학 농과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89명의 감별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인전과 각지방별 단체전이 펼쳐졌는데 개인전 1위는 군마현에서 참가한 後藤順一씨가 감별을 100%, 감별시간 3분34초로 2위보다 2초 빠르게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큐슈지부가 평균감별을 100%, 평균감별시간 4분13초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일본의 초생추 감별대회는 지난 1924년 축산학회에서 처음으로 감별의 중요성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鶏の研究)

호주

외식 산업 급격한 팽창 예고

호주에서는 최근 포르투갈식 패스트 푸드 양념닭고기 체인점인 난도스(Nandos)가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오면서 외식산업의 급격한 팽창을 예고하고 있다. 난도스는 9년전에 개발, 보급이 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데 현재 11개국에 퍼져 있으며 호주에는 29개점이 들어서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2년후에는 120~150개의 상점이 호주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경영측면에서 큰 규모 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 밝혔다.(WP)

## 미국

### 자외선 처리 닭고기 곧 시판

미국의 가장 큰 닭고기 계열업체인 타이슨사는 자외선처리된 위생적인 닭고기를 시중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닭고기 제품은 전자빔을 이용하여 유해한 박테리아균을 살균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저주파 감마선 처리한 제품보다 위생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타이슨사는 두개의 계열사에서 포장, 상표화, 생산검사 등의 실험을 통해 성공할 경우 올해 초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WP)

## 중국

### WTO 가입키로 합의, 닭고기 관세율 2004년까지 10%

중국이 미국과 13년간에 걸친 장기 교섭을 거쳐 WTO에 가입키로 지난해 말 최종합의했다. 이로써 중국은 EU 등과의 2국간 교섭, WTO가입의정서 등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 가입이 이루어지는데 중국 농산물의 관세율은 WTO가입 후 2004년 까지 인하된다. 닭고기의 경우 현행 20%인 관세율을 2004년에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MJ)

## 카자흐공화국

### 가금육 생산 큰폭 증가

카자흐공화국 농무성에 따르면 카자흐 공화국의 가금육 생산은 1998년도에 24만1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6%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도에는 24만5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카자흐 공화국의 1인당 가금육 소비는 17.8kg이며 1999년도에는 이보다 2%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무역적자폭도 1997년 12,786톤에서 1998년도에는 8,832톤으로 줄어들었는데 주요 원인은 생산량 증가로 태국에서의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WP)

## 아프리카

### 타조와의 전쟁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사이에 타조로 인해 양국간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발단은 나미비아에서 타조고기 대리점을 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엑소탄(Exotan)사가 과일생산된 타조를 처리하기 위해 덤핑판매하자 나미비아타조협회가 엑소탄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유통구조의 흔들림으로 인한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국내의 주식이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나미비아 타조협회는 정부에 대해 이를 계속 방관할 경우 외국 타조 수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엑소탄사는 생산성 절감으로 인한 가격 파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 맞서고 있어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